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세상에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 분열된 세상, 주님이 화목케 하신다!

#### 라이프웨이, IPSOS 설문결과 “문화전쟁 중인 미국 분열, 교회가 봉합해야한다” 제언

미국의 절반 이상(57%)이 국가가 “문화전쟁”으로 분열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구촌 28개국을 포함하는 IPSOS 연구(U.S. stands out among 28 countries in perceptions of social tension: Over half of Americans say the country is divided by “culture wars”)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57%)이 TV, 뉴스 미디어 및 온라인에서 본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국가가 “문화전쟁”으로 분열됐다고 응답했다. 미국 외에는 남아프리카(58%)와 인도(57%)만이 그러한 분열에 국가가 직면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더 다양한 국가가 다양성의 영역을 둘러싸고 긴장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 단일 문화 및 단일 민족 국가가는 그러한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적다.

라이프웨이의 아론 얼스(Aaron Earls)는 이러한 국가적 분열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교회와 기독교인 개개인이 갈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보여주고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말한다(U.S. Is One of the Most Divided Nations, but the Church Can Help).

**정치**  
미국인 10명 중 9명(90%)은 정부(여당)가 다른 정당(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모든 문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 세계적으로 69%가 이를 자국의 문제로 보았다. 한국(91%)과 미국은 정치적으로 가장 많이 분열됐다. 중국(38%)이나 일본(31%)에서는 정치를 국가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찬가지로, 미국 성인의 76%는 사회 계층에 따라 긴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전 세계 평균은 67%다. 칠레(88%)와 한국(87%)이 이러한 구분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중국(43%)과 사우디아라비아(41%)는 그 절반이다.

**직업**  
미국인 4명 중 거의 3명(73%)은 대도시 엘리트와 일반 노동자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생각하며, 전 세계에서는 62%가 이러한 분열을 보고 있다. 칠레(84%)와 러시아(82%)는 이러한 국가적 긴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39%)과 중국(37%)은 가장 적다.

**종교**  
미국 성인 5명 중 3명 이상(63%)은 오늘날 미국에서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긴장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세계 평균인 57%를 약간 상회한다. 한국(78%)과 인도(75%)는 이러한 분열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35%)과 일본(23%)은 그러한 긴장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면으로 계속)

**이념**  
미국인(85%)은 한국(87%)과 칠레(86%)에 이어 진보적이거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직시하는 시민 비율에서 3위를 차지했다. 중국(38%)과 일본(34%)은 이념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았다.

으로 그러한 긴장 정도가 가장 낮다.

**경제적 격차**  
미국 성인의 81%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미국인은 전 세계 평균인 74% 중 이 범주에서 9위를 차지했다. 칠레(91%)와 한국(91%)은 이러한 빈부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본(54%)이나 사우디아라비아(50%)에서는 그나마 비율이 과반수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의 사람 중 적어도 절반은 빈부간의 긴장이 존재한다고 응

답한 유일한 문제다.

**이민**  
미국인 4명 중 3명 이상(78%)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다고 응답했다. 지구촌 평균 3명 중 2명(66%)은 자신의 국가 역시 분열이 있다고 말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89%), 벨기에(81%), 페루(80%)가 이러한 긴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일본(35%)과 중국(35%)은 하위권이다.

사회 계층



### 인간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 BB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 중요성과 담길 내용 소개

지금 이 순간 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밤낮으로 몰두중인 보고서가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2013년 5차 보고서를 낸 이후 지구 온난화 상황에 대한 차기 보고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어쩌면 이 보고서가 향후 지구의 미래를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 보름 남짓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 연구 결과를 검토하는 수많은 화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료 과학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자신들의 모든 주장을 입증하려 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요약 보고서는 약 40쪽 분량이다. 전 세계 지도자들의 기후 문제 대처에 큰 기여를 하기에 이 보고서가 인류사의 나침반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은 아니다.

전문가들도 이 보고서가 각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195개 국가가 IPCC 회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매트 맥그래스 BBC 환경 분야 특파원이 제작중인 보고서를 보고, ‘왜 이 보고서가 최근 10여 년간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담았다(Climat change: Researchers begin discussions on vital report).

6차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극단적 기상 이변이 미국과 캐나다, 유럽, 아시아를 강타한 것을 목도했다. 이 때문에 최근 소집된 회의에서는 ‘인간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의미를 갖게 됐다.

IPCC가 지난 2013년 5차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기상예보를 신뢰할 수 있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도 그다지 심하게 녹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3면으로 계속)



발행인 킬렘 김성국 목사



푸른초장 강신용 목사



연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 라홍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ighthouse.com / chp@lighthouse.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 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해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목회전공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발행인 칼럼

도둑이 있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여기 도둑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시간에 그렇게 폭로했다. 성도들이 흡션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렇다. 그 시간 거기에 도둑이 있었다. 최근에 필자가 섬기는 교회가 위치한 뉴욕 플라싱의 한인 교회 두 곳에 도둑이 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좀도둑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강도 같은 도둑이 성도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 “그럼 왜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

시겠지만 경찰이 잡아낼 도둑이 아니다. 그 도둑은 성도들의 호주머니나 가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마음에 넘쳐야 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앗아가는 심각한 도둑이다.

살리에리는 그런 도둑을 맞았다. 그리고 평생 힘들게 살았다. 영화 아마데우스는 처음부터 도둑맞은 살리에리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사울도 그런 도둑을 맞았다. 그도 역시 도둑을 맞은 이후 비극의 생애를 보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헤집고 다니는 그 도둑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비교(comparison)”이다. 살리에리는 비엔나의 궁정음악장이었다. 그의 위치나 재능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살리에리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모차르트의 재능과 자신을 비교하며 일생을 불행하게 산다. 신을 잘 섬기려는 자신에게 저 천방지축(天方地軸) 살아가는 모차르트보다 못한 재능을 주었다고 신을 원망도 한다. 영화에 보면 살리에리는 평생을 시기 질투로 보내다가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도 자해한다. 자해 이후 정신병원에서 과거를 슬프게 회상하는 살리에리, 가련하다. 사울은 그 이상이다. 사울은 잘생긴 왕이 아닌 던가.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천이라 하고 다윗을 만만이라 하는 노래를 건널 수 없어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 못해 아예 그를 죽이려는데 일생을 쏟아 붓다 비참하게 죽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평안의 도둑이다. 믿음의 도둑이다. 감사의 도둑이다. 겸손의 도둑이다. 그 좋은 것들을 다 앗아가는 심각한 아주 못된 도둑이다. 설교 중에 말했던 도둑이 바로 “비교”라는 도둑이었다. 다른 이를 말해 무엇 하랴. 내가 바로 그랬다. 나의 불행은 누가 가져다 뿌린 것이 아니다. 나의 불행은 나의 비교하는 삶에 있었다. 나의 불만은 비교에 있었다. 나의 열등감은 비교에 있었다. 나의 교만은 비교에 있었다. 사실, 아직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비교”하는 삶을 멈추고 “나는 그 자체로서 소중한 나”임을 다시 깨닫고 살기 시작했을 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회복되었다. 성도들에게 그런 삶의 회복을 위해 “비교”라는 도둑을 쫓아내자고 그날의 설교에서 외친 것이다.

다윗은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자신을 신묘막측(神妙莫測)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때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깃든다. 내 주변에 잘못 놔두었다간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 평생 조심하자. 도둑 조심하자. “비교”라는 못된 도둑을.

[정정] 1835호 2면 발행인 칼럼 제목을 “함께”의 미학(美學)으로 바로잡습니다.

자기 일에 의미 못 찾고 지루하다... 만성적 무력감

BBC,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목받고 있는 ‘보어아웃’ 증후군 소개와 대처 방안 소개

우리는 ‘보어아웃’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어아웃’은 생소한 개념이다. 보어아웃은 장시간의 노동과 일과 생활의 불균형, 과로를 열정의 덕목처럼 여기는 풍조와 관련 있다. 반면 보어아웃은 자기 일에 의미를 못 찾고 지루함을 느낄 때 생겨난다.

보어아웃과 달리 보어아웃은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산업 곳곳에서 보어아웃 못지않게 영향을 끼친

다고 말한다. 회사는 보어아웃으로 인해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맞닥뜨릴 수 있다.

보어아웃을 알아야만 노동자와 회사 모두 대처법을 찾을 수 있다. 노동자의 복지를 우선하는 새로운 노동문화 속에서, 전문가들은 보어아웃도 다른 직장문제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The damaging effects of 'boreout' at work).

수년 동안 보어아웃을 연구해 온 로타 하르주 프랑스 EM 리옹 경영대학원 조직행동학과 교수는 “보어아웃은 말 그대로 지루하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조로운 환경에서 열정을 잃고 일하거나 오랫동안 아무런 도전 의식도 없이 일하는 것 등 만성적인 무력감은 다양한 이유로 생겨난다. 하지만 하르주 교수는 보어아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의미함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보어아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며칠씩 계속될 때는 해결이 필요하다. 방치하면 나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식했을 때는 이미 만성화로 접어들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르주 교수는 “보어아웃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탈진해 쓰러지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어아웃은 번

흥미를 느끼는 업무를 맡는 것이 한 예다.

하르주 교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목적이나 영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16년 하르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보어아웃을 경험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직장에서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을 찾는 등의 건설적 시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르주 교수는 (보어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온라인 쇼핑이나 온



현상 3가지: ①엄청난 무력감 ②성장 위기 ③(직업과 삶) 의미 위기 해결책은 더 흥미 느끼는 업무 맡기...조직 문화 창출은 경영진의 몫

루스 스톡-홈버그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보어아웃이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했다.

“한정된 시간에 편익점에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사람들이 멍하게 서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몇 시간씩 손님을 그 저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도 있었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비슷한 상황을 겪는다.

스톡-홈버그 연구팀은 보어아웃의 주요 현상 세 가지를 찾아냈다.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고, 성장의 위기와 (직업과 삶) 의미에 대한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하르주 교수는 2014년에 핀란드 회사 87곳의 노동자 1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한 연구를 진행했다. 하르주 교수는 만성적인 무력감이 “직원들의 이직과 조기퇴직 의향은 물론, 건강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 반응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터키 공무원 186명을 연구한 2021년 연구에서도 보어아웃에 시달린 이들에게선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불안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보어아웃으로 우울증이 생긴 노동자들은 퇴근 후에도 두통과 불면증 같은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았다.

보어아웃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보통 보어아웃 상태를

아웃과 다르다”며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사무실에 문제없이 출근하기에 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어아웃에 시달리고 있음을 깨달은 노동자들 역시 이 상황을 상사나 인사 담당 부서에 잘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일에 대한 몰두 등 보어아웃과 관련된 행동은 고용주들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지만 보어아웃은 “일에 대한 관심과 동기의 부족으로 평가 받는다”는 게 하르주 교수의 설명이다. “조직 안에서 이러한 태도는 금기시 되고 있죠.”

다행히 해결책은 있다. 더

라인 도박, 동료와의 채팅, 업무 외의 다른 일에 대한 계획 등으로 시간을 보내곤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보어아웃에 대한) 대응 매커니즘”이라는 것이다.

2021년 연구에 함께 참여했던 파흐리 외젠그루 터키 메르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는 보어아웃에 대한 대처를 개인에게만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직원들만의 몫이 아니다”며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조직 문화 창출은 경영진의 몫”이라고 말했다.

(9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Services include general medicine, dermatology, and various diagnostic tests.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in New York, NY. Services include general dentistry, orthodontics, and emergency care.

Advertisement for FAMILI STUDY, a research project by NYU Langone Health. Focuses on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Recruitment for participants from diverse ethnicities.

Advertisement for the Houston Korean Christian Church. Recruitment for a church council member (담임목사 청빙공고). Details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procedures.

### 분열된 세상...

(1면에서 계속)  
세대 간 차이  
전 세계적으로 46%가 자국의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54%가 동의한다. 한국(80%)과 인도(61%)는 자국에 이러한 긴장이 존재한다고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프랑스(31%)와 스웨덴(29%)은 거의 동일하다고 답했다.

**성별**  
미국의 과반수 이상(53%)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답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48%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80%)과 남아프리카공화국(71%)이 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러시아(27%)와 네덜란드(25%)에서 4분의 1 정도가 성별에 구분을 둔다.

**교육**  
미국 성인의 절반(50%)은 전국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긴장이 있다고 말한다. 조사 대상 28개국 중 평균은 47%였다. 한국(70%)과 페루(66%)가 이러한 분열을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30%)와 네덜란드(27%)는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도시화**  
미국의 46%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42%가 평균이다. 이러한 긴장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국가는 페루(66%)와 인도(61%)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스페인(29%)과 독일(25%)이다.

교회공동체가 분열 극복

**을 위한 촉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긴장이 지역사회와 심지어 그들의 회중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2018년 라이프웨이 리서치 연구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교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절하게 분열돼 있다(46% 동의 및 42% 동의하지 않음).

잠재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가르치고 토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과 "도시 거주자" 또는 기타 여러 항목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만 한다. 복음은 그 자체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장벽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분열과 긴장이 팽배한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차이를 보여주시고 갈등 속에 있는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일할 수 있다.

실제로, 교외나 시골 지역에 거주한다면 전도 행사를 위해 도시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 다양한 민족의 교회와 합동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민자와 난민을 섬기는 사역과 연결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 환대와 복음의 길을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 인간이 지구온난화의...

(1면에서 계속)  
6차 보고서가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에서의 인류 역할을 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5차 보고서 저자들은 1950년대 이후의 온난화가 인간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일부 국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욱 더 강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과거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생긴 극단적인 기상 이변들도 다루게 될 것이다. 최근 몇달 새 전 세계에서 벌어진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폭풍, 홍수, 가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코린 르 퀘레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학 교수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기에) 이번

보고서에는 더 많은 정보가 담길 것"이라며 "IPCC가 극단적인 기상 이변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코린 르 퀘레 교수는 과거 두 번의 IPCC 보고서에 참여한 바 있다.

해수면 상승과 북극과 남극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우리에게 금세기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한

선택지를 평가해 정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료는 보통 6-7년 주기로 제공된다.

지난 30년 동안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IPCC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요약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며,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IPCC가 단지 과학적 입장에서 자료를 제시하는 기관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승인한다는 것은 모든 정부가 연구 결과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라고 썼다.

지난 몇 년간 기후 변화와 관련된 증거가 쌓이면서 IPCC의 보고서에는 더 큰 힘이 실렸다.

2013년 5차 보고서에선 인간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 말했다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에 기여했다.

2018년에는 IPCC가 지구

정보도 제공할 전망이다.

IPCC는 무엇이며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IPCC는 1988년에 결성됐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와 잠재적인

리처드 블랙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그린랩 연구소의 명예연구원은 "IPCC 자체가 사실상 195개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이 IPCC의 핵심"이라며 "보고서를 만드는 과학자들의 단체가 아니라 각국 정부가 참여하는 매우 독특한 기구"라고 말했다.

리딩대학의 기후학자 에드 호킨스 역시 "(각국의 정부가 참여한다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자극이 됐고 젊은 세대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정치적 대응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IPCC의 차기 보고서는 8월 9일 출간될 예정이며 내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 기후협상에서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 교수는 "분명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인류가 전세계에서 목도하고 있는 기상 관련 재난 심각성에 경종 울릴 것"



### 시론

### 하나님의 기대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경남 산청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대구의 중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구까지 학교를 보내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앞날을 위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실망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성적표의 68등이라는 숫자를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갖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이 뜻밖의 일로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1등을 축하한다고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마을잔치를 연 것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가장 큰 재산이었던 돼지를 아낌없이 포기한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죄책감으로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아들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박사가 되고, 대학교수가 되고,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 듣는다." 경북대학교에서 총장을 역임했던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의 뻘 한 거짓말에도 묵묵히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시골 가난한 집에서 농사짓고 돼지를 기르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와 믿음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떠은글 정리).

저는 경북대학교 박찬석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자식은 아버지의 기대와 믿음만큼 성장한다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나?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요, 종들이요 저희들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클까? 과연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와 믿음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향하신 기대와 믿음을 가져서 한 알에 담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작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작다는 것을 감추려 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작다는 것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다 자라버린 큰 나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겨자씨는 작습니다. 1mm 정도 무게도 1m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일지라도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은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썩, 이삭,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것이기에(막 4:26-29)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더 마음껏 뻗어나갈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작은 겨자씨 안에서 큰 나무가 되는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작은 것을 대표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굳이 겨자씨 말고도 모래알과 같이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겨자씨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모래알보다 다른 것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자라납니다. 자랄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직경이 1mm, 무게가 1m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자라면 평균 키가 1.5m-3m(1500배-3000배)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그 꿈은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 맺습니다. 왜일까요?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고전3:7).

주님은 겨자씨 한 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꿈이 자라나 그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되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울창한 나무가 되어 가지들 펼칠 때 새들이 날아와 노래하리. 여행객들이 그늘 아래 쉬어가리. 우리가 자라나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고, 꿈과 복을 나누는 인생을 이어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자만이 아니라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믿음을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담아 전하십니다(막4:30-32).

참 무덤입니다. 변화무쌍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과 일상의 힘듦과 어려움도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조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꿈과 기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걷는다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들의 인생 안에 여호와와 행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겨자씨 한 알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꿈 이야기입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버려진 성경 살리기

# Re:Bible Note

버려지고 외면받던 성경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성경노트  
One and Only 성경노트  
다시 사랑받고 싶습니다.

구매는 히스핑거를 웹사이트를 통하여 하실수 있습니다.  
**www.hisfingermall.com**

모든 노트는 버려진 성경으로 만들어진 단하나뿐인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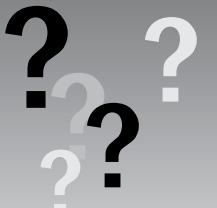
\*수익금 전액은 문서선교에 사용됩니다.

**Hisfinger**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제 주변에는 트랜스젠더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자는 무엇이 다른지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성경적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할리우드 Lee 권사

**A:**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동성애를 성적 표현의 한 형태로 생각하고 동성애자를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하리수라는 가수가 남자에서 여자로 성 전환하여 세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0년 가을 홍석천이라는 연예인이 동성애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 소위 커밍아웃(Coming out)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동성애에 대한 논의가 격렬히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06년 6월 22일에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젠더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몸뿐 아니라 이젠 성전환 수술까지 하여 자기가 마음대로 성까지 전환을 하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전환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신대학원 이승구 교수의 "광장신학"이란 책을 참고해 설명합니다.

첫째, Transsexual people(성전환자)입니다. 이들은 타

성경적 성정체성은 출생 시 고정

고난 성과는 다른 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Sex reassignment surgery(SRS) 혹은 gender reassignment surgery 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기절제수술을 하고 다른 성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여성화 성기성형(feminizing genitaloplasty) 그리고 남성화 성기 성형(masculinizing genitaloplasty)이란 말이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남성에서 여성이 되고자하는 사람(trans woman)이 여성에서 남성이 되고 싶어 하는 자(transmen)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스웨덴의 경우는 1:1이라고 합니다.

둘째, 트랜스젠더(Trans gender)입니다. 이 말은 1990년대 "레슬리 파인버그(Leslie Feinberg)"가 특정한 운동적 의미로 사용한 이래로 태어날 때 주어진 성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됩니다. 트랜스젠더는 원래 물리적 성을 바꾸는 수술을 하지 않고 출생의 성과는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수술도 원치 않고 수술도 할 수 없지만 출생형태에 따라 가정되는 것과는 다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성의 복장을 착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옷을 바꾸어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거나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이처럼 그 어떤 성에도 매이지 않고 남나고 싶어 하는 자들을 크로스젠더(Cross gender)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행위를 금하고 가증하게 여깁니다. 신명기 22:5절에서 남자의 옷이라고 번역된 것은 남자의 것들(man's Thing)로 단지 남자의 옷만이 아니라 남성에게 속한 것을 가리킵니다. 장식물이든 무엇이든 남자와 연관된 것을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금한 이유는 첫째, 동성애적 연관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XX, 여자는 XY로서 타고난 염색체대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고대사회에서 상대방 성의 옷을 입는 행위가 특정한 이교신들의 제의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성 정체성은 인권을 이유로 사람이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살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제3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성정체성은 출생시 고정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 역적이 되어 잔인하게 처형되는 것을 보며, 백성들은 그 비참한 굶주림에 말을 잃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없었음에도 굶주려 죽는지 모른다. 영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자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보라. 영국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면 선봉보따리를 풀어놓고, 교회와 예배가 폐하여지며 하나님을 떠나자 먹을 것도 입도 입도 없이 주려 죽는 피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는 복한을 보라.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얼마나 불쌍해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된다.

davidnjeon@yahoo.com

과격하게 말을 한다. 교회를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 정권의 결말이 궁극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공감하는 마음에 아주 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겠는가?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주시는데, 순간 회개의 마음을 함께 주셨다.

'부족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이 나라는 대체 누구의 나라이며, 누구의 조국이며, 누구의 땅이더냐?' 하는 음성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치시고 고통을 주신다면 이를 달게 받을 나라가 바로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이기에 그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다. 그 음성 앞에 끈장기도의 제목을 바꾸며 아뢰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속히 돌이켜 주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던 나에게 주님은, 이들이 당할 고통이 내 나라 내 민족의 고통임을 알도록 하셔서, 오직 더욱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키시는 은혜만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었다.

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주님의 교회에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방문한 교회에서는 주일예배를 일주일에 오전 오후 14번으로 나누어 단 한명이라도 더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다.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대구에서도 부산과 창원에서도 방역의 강도와 느낌이 조금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였다. 비록 예전의 그 흥왕하던 예배의 부흥을 맞보던 때와는 상상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 같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긴장감들이 있었다. 참 좋았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특별히 한국에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 몸부림치는 부산 세계로교회에서의 예배와 말씀증거를 통해서는 가슴 뭉클한 감동이 찾아왔다. 세계로교회는 예배의 제한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지킬 것을 지키며 예배를

한국 방문 중에 서울 부산 대구 제주를 오가며 교회를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한국 방문을 지혜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연락 오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모두가 귀하고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결국은 열매 없는 일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혹은 잠나는 대로 어머니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커피숍과 도서관을 겸한 곳에서 먼저 말씀을 보고 한국의 일정 재점검, 그리고 인터넷 시대의 불편함인 밤낮이 다른 두 곳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불필요한 일과 필요한 일, 꼭 해야 할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정리하며 먼저 지혜를 구한다.

미국과 달리 굉장히 깊이 세계 쫓기는 데 상당히 아팠다. 짜증스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화살기도로 은혜의 마음을 불들었다. '그렇지, 소가 일을 하려면 코뚜레를 뚫어야 하듯이, 주의 종이 이제 한국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코뚜레를 뚫어서 주인의 통제를 잘 받아야지...' 이런 나름의 기특한 생각도 했다. 생각이 그러다보니 깊이 잘 뚫는 간호사를 향해서도 오히려 크게 감사하며 인사를 했다. 역시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안내문을 읽어보니, 앞으로 6월 후에 다시 검사를, 출국 사흘 전에 증상에 상관없이 다시 검사하고 증명서 소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순간 마음을 놓칠 뻔 했다. 감사와 기쁨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예배의 회복, 세상의 회복

- 조국, 교회, 부흥

님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을 보고 듣게 되었다. 금번 글 순서에서는 이렇게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경험한 일들과 몇 가지 감상들을 전하고자 한다.

한국방문기

두 주전 미국에서 출국 비행기가 월요일 아침이어서, 한국에서 요구하는 72시간전 PCR 검사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맞추어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비행기에서는 14시간 동안 그동안 밀린 숙제 같은 일들을 정리하며 주는 밥 먹고 간식 먹고 하다 보니 잠시 제대로 눈 붙일 틈도 없이 인천에 도착하게 되었다. 편리해진 세상 탓에 하늘 공중에서도 인터넷을 켜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편리하다고 인간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비행기에 내려서부터는 마치 전쟁 포로처럼(?) 쪽 길게 늘어 서서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서서 순서를 기다렸다. 방역에 아주 지나치게 열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 촘촘해진 입국심사의 과정들을 지났다. 이것저것, 자가격리 앱을 다운 받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겨우 통과를 하였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외국을 다녀오며 이런 과정을 지나거나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신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오면 백신 격리 면제자에게 주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주소지 근처의 보건소

에서 24시간 안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숙소를 떠나면 위치추적을 당한다는 경고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다음날 말씀을 전할 강단에 있는 교회 근처 보건소에서 출국 전에 받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다.

미국과 달리 굉장히 깊이 세계 쫓이는 데 상당히 아팠다. 짜증스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 화살기도로 은혜의 마음을 불들었다. '그렇지, 소가 일을 하려면 코뚜레를 뚫어야 하듯이, 주의 종이 이제 한국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코뚜레를 뚫어서 주인의 통제를 잘 받아야지...' 이런 나름의 기특한 생각도 했다. 생각이 그러다보니 깊이 잘 뚫는 간호사를 향해서도 오히려 크게 감사하며 인사를 했다. 역시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안내문을 읽어보니, 앞으로 6월 후에 다시 검사를, 출국 사흘 전에 증상에 상관없이 다시 검사하고 증명서 소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순간 마음을 놓칠 뻔 했다. 감사와 기쁨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다.

코로나와 조국교회

서울의 몇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교회들은 사이즈를 떠나 무조건 19명만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2천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필수요원만 참여하면서 혼자 할렐루야와 아멘을 반복하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을 붙잡아 주셨지만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

나라와 민족의 회복, 예배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오직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성경의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의 흥망성쇠도 한 가지 이유뿐이다. 예배의 실패와 성공이다. 이것이 바로 먹고 이것을 방해하면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것이 되고 만다. 모든 복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 하늘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모든 복이 있다. 주의전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생활과 예배생활이 분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이 잘살아 보기 위해 자신들의 신을 세우고 노력하며 빌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러시아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던 나라였으며 다른 종교가 없었다. 그러나 레닌의 불세비혁명으로 공산화가 되었고, 교회와 예배가 폐하여지며 침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마케팅과 지하철, 음악콘서트 장에는 경제활동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원제한을 불필요하게 하지를 않는데 교회는 누가 왔는지도 분명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가는 데도 교회를 물리적인 숫자로 제한하는 것을 대적하며 예배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저들의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했다. 그 때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보시사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정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마음

한국에서 만난 어떤 이들은











###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할까?

인생이란 두 글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길에는 다양한 경험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긴박한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별히 지나친 생존경쟁의 현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제압하고 앞서가려는 강한 의지와 욕구들이 있어서 서로를 피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두 부류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성공한 부류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한 부류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은 상하고 지치고 원래의 모습이 아닌 별질된 모습으로의 자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위 괴물이 되어버린 자기를 발견하고 놀라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자리에 떨어지곤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가 보여주는 참혹한 인생의 운명을 목격하면서 일종의 허무주의자들이 되어 가는 듯합니다. 흔히 인생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고들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끝도 허무하고 실패의 끝도 허무하

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발견하는 현대인들은 몇 가지 반응들을 나타냅니다.

혹자는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려고 극한 쾌락을 추구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혹자는 인생의 허무를 잊어보려고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나름대로의 취미를 추구합니다. 혹자는 인생의 허무를 해결하려고 산사를 찾기도 하고 철학서적을 뒤적거리기도 합니다. 혹자는 인생의 허무를 알차게 채워보려고 긴 여행길에 오르기도 합니다. 혹자는 인생의 허무를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어느 범조인의 자기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는 소위 성공해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상을 향해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도 원하던 그 자리에 오르고 보니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경쟁적인 투쟁의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나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죽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희망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희망하던 그것을 얻고 난 후에 누구나 허무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이 각자 나름대로 걸어두었던 그 희망은 참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세계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참혹하고 허무합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할까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김성억 목사님의 설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집회 첫날 첫 시간의 설교가 화장터 이야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의 죽음과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신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매우 허무하고 그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인생의 희망을 걸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 희망이 본질적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확실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부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확실한 영생천국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부활의 소망의 내용이 우리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말씀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고전15:14-15).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의 실체가십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들의 참된 희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리고 쉬 지나버립니다. 우리는 이 허무한 인생 그대 순례 길을 갈 때에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59).

cyd777@hotmail.com



퀸즈장로교회가 2021 단기선교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있다.

### 3개국 대상 새로운 온라인 방법으로

#### 2021 퀸즈장로교회 단기선교 KINGDOM MISSION

매 여름 10여개의 선교지로 단기선교 대원들을 파송했던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21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새로운 선교방법을 찾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3개 지역을 대상으로 KINGDOM MISSION 선교 활동을 이어 간다.

KINGDOM MISSION의 골(GOAL)은 1. 매일 KING을 높이는 선교 2. 어디서나 KINGDOM을 전하는 선교 3. 누구나 KINGSHIP을 누리는 선교로 펜데믹 이후 모든 것이 바뀌어가지만 선교의 사명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때다.

코로나는 국지적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각 나라의 대응 방식과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는 자체 백신 생산과 국가적 차원의 백신 수입으로 여행과 같은 이동의 자유와 정상적인 생활 복귀가 2021년 안에 어느 정도 달성되겠지만 우리의 선교지들을 포함한 제3세계는 안타깝게도 평상의 시간으로 돌아오기에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선교지 방문이 어렵다고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지가 코로나에서 회복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선교의 사명을 이어나가야 할 때다.

### 8월 12-14일 80여 선교팀 참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80여명의 선교대원들이 교회에서 숙박하며 현지 시간에 맞춰 3개국 동시 ZOOM과 YOUTUBE 등을 통해 LIVE 방송으로 청소년 집회, VBS, 언어사역, 의료사역, 부흥회, 선교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단기선교는 특별히 퀸즈장로교회가 그동안 해온 다민족 사역의 장점을 살려 KINGDOM SCHOOL이라는 온라인 학교를 개발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언어교육을 다민족 교우들이 함께 진행하게 된다. 또한 선교지의 예배가 풍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지 스태프를 교육하는 피아노 수업, 미디어 클래스 등을 통해 단기선교 기간이 끝나도 선교지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돕는 새로운 선교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KINGDOM MISSION의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배: 선교 기간 동안 모든 선교 활동의 시작과 마지막을 4개국 순서를 나누어 맡아 함께 예배를 드린다. △Rise Up/ 청소년 예배: 4개국 청소년들이

함께 찬양과 간증 등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눈다. △VBS: 정해진 주제(KAPCQ VBS)를 가지고 선교지 스태프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한다. △의료: 단기 의료팀을 통해 원격으로 의료 지원과 건강 세미나를 시행한다. △KINGDOM SCHOOL: Language Class-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Music Class-피아노, Media Class-Audio Video 편집 스텝별활동: 태권도.

선교지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할 것을 감안해 모든 사역들을 별도로 녹화본으로도 준비한다.

이번 KINGDOM MISSION을 위해 지난 6월에는 한 달간 매주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바자회를 진행해 전교인이 함께 선교를 준비해왔다.

(기사제공: 퀸즈장로교회)

### ...만성적 무력감

(2면에서 계속)

“업무를 조금 바꿔주세요. 일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을 즐거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는 조직은 보어아웃에 대해 알아야 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일들이 짜릿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다. 하지만 하르주 교수는 “직장 내 좋은 인간관

###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대형 집회를 하면서 결산자를 이끌어내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번 믿는다는 고백이 구원받는 방법의 정석(定石)처럼 굳어져버린 것과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따라하며 심지어는 전도지의 영접기도를 한 번 읽기만 해도 구원받았다고

hour를 그 날과 그 시간으로 번역했으나 한글번역 성경을 거의 대부분이 day and hour를 그 날과 그 때로 잘못 번역되었음을 확인하고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읽으면 미래가 보이고 마지막 때가 보이며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나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것 등이 지루한 업무에 대해 약간의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감사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느끼게 만들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게 바로 “훌륭한 리더십”이다. 리더들이 직원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지금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의미 있는지 소통하는 것이다.

선언하면서 죄인들을 불뭇으로 밀어 넣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조금도 구원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명하셨고(막1:15), 사도들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을 걸었다. 회개는 죄와 사귀었던 심령을 철두철미하게 부수는 것이며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aerimkang@hotmail.com

<h2>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h2>		
<b>뉴욕세브라메리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진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 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b>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b>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어 예배: 오전 10:45 2부 오전 9:15 3부 오전 8: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b>뉴욕센트럴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후 1:30 다민족영역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평일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전일수업: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b>베이사이드 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8: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사역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b>사랑의동산교회</b>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b>어린양 개혁신교회</b> 담임목사: 유승혜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b>빛과소금교회</b>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토) 주일 2부 오후 1:50(토) 주일 3부 오후 4:50(토) 청년예배: 오후 8:45(토) 수요예배: 오후 8:00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b>밴쿠버빌리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전 7: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오전 6:30(토) 금요기도회: 평일 저녁, 화, 목, 금요일 오후 7:30 금요영양 기도회: 매월 둘째(목) 오후 7:3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b>칠레 한인연합교회</b>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b>토론토 가든교회</b>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00	<b>멕시코 현지인 교회</b>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첸시오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

## 동부교계 기사판

### 실버미션스쿨 36기 학생모집

뉴저지 실버미션 훈련원이 주관하는 실버미션스쿨이 36기 학생을 모집한다. 8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줌 영상으로 하게 된다.  
▲문의: (201)694-2855 김중국 훈련원장, (732)778-1538 이문홍 사무총장

### 2021 장애사역 컨퍼런스

2021 장애사역 컨퍼런스가 9월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뉴저지초대교회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와 초대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 참가비는 100달러. 또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는 PCSM 장애인선교 전문사역자 과정이 열린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29일은 2시30분까지). 30일(목)에는 장애자녀 부모세미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15분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jchoda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01)252-7567 주민지 전도사, (201)366-2526 권영제 집사



이준성 목사가 기자회견장에서 법규위원장의 소견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 법규위원장 무효 소견서 발표

### 뉴욕목사회 직전회장 이준성 목사 제명관련 기자회견

뉴욕목사회 48회기 회장을 역임했던 이준성 목사가 지난 달 30일 오후 1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7월 26일 뉴욕목사회 제 2차 임시행위위원회에서 제명한 것에 대해 소명했다[본지 1835호 제 10면 뉴욕목사회 2차 임시행위위원회 기사 참조].  
베이스айд 거성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는 48회기 회계 박도보라 목사와 서기 박시훈 목사가 동석했다.  
이준성 목사는 26일 임시행위에 대한 현 49회기 법규위원장 정순원 목사의 소견서를 낭독하며 제명 절차가 잘못돼 소명의 기회가 없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진료로 늦게 참석한 정순원 법규위원장의 소견서는 다음과 같다.

와 재정한 달라스 거주 김영환 목사는 회원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회장의 가, 부에 대하여 아니오 라는 대답이 있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음으로 임신행위 자체가 무효다.  
이준성 목사는 이런 사태가 야기된 원인인 재정문제에 대해 "지난 3년 회기 동안 재정사 용에 대해 검토비교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은 기존의 전통적인 틀 안에서 재정을 운영한 것이며 불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49회기가 일반적으로 13,000달러를 책정하고 48회기에서 절반을 주면 무마하겠다는 제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명이라는 극단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성 목사는 임신행위위원회 조사위원회 발표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위가 공개하지 않은 56페이지 보고서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 안에는 김진화 목사에 대한 내용도 있으며, 위원들이 처리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사퇴한 위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준성 목사는 자신 부덕의 소치를 알고 앞으로 목사회 화합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여목협 제 13기 사무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항상 기뻐하라' 선교에 헌신 노력하자

### 미주한인여목협 제 13기 사무감사예배 및 이취임식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 13기 사무감사예배 및 이취임식이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진아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이미선 목사가 이임했다.

이진아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는 "13회기가 '항상 기뻐하라'(살전5:16)를 표어로 팬데믹 가운데서 미주여목협이 나아가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책임을 소명을 다해 이끌어 가야 한다"며 화목을 강조하고, 영혼 구원인 선교에 헌신하고 노력하자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임하는 이미선 목사(할렐루야뉴욕교회)는 "짧은 회기였지만 7전8기 믿음으로 주님만 보고 기도했다"며 PCUSA의 지원을 받아 12회기에 한 일인 △여성목회자 양성 △도미니카 선교지 후원 △주소록 발간 △4회 중보기도회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의 일을 언급하고 "부회장 재임 없이 회장이 된 이진아 목사를 많이 돕기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하정민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증경회장 김진영 목사, 성경봉독 이주실 목사, 특송 뉴욕크로마하프 찬양단, 말씀 뉴욕교협부회장 김희복 목사, 봉헌기도 증경회장 백남숙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복 목사는 "기도의 동지, 사랑의 동지"(요11:1-1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삼남매의 관계는 동지관계였다"며 "첫째 주님은 사모하는 곳에 가신다. 전능자의 음성 앞에 죽는 자가 살아난다. 둘째 기도의 동지, 사랑의 동지는 미워할 수 없다. 셋째, 동역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미주여목협이 사랑의 공동체로 기도의 동지들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정숙자 목사 사회로 임명사, 스톨인계, 취임사, 임명장 수여, 권면, 축사, 축하영상(문석호 뉴욕교협 회장, 김관호 순복음북미총회장, 이정환 뉴저지교협회장, 백형두 북미총회동북부지방회장), 감사패 증정, 광고 백금숙 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권면을 한 이광희 목사는 "여목협 초창기부터 12년간 도우미 역할을 했다. 큰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연합하라"며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 (빠)풀고 살라"고 말했다.  
축하순서를 맡은 한재홍 목사는 "①한국여성으로 태어난 것 ②목사부인인 것 ③목사된 것을 축하한다"며 "지도자는 사랑이 넘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회의 품격이 달라진다"며 축하했다.  
제 13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진아 목사 △부회장 하정민 목사 △총무 정숙자 목사 △서기대행 백금숙 목사 △회계 박수자 목사 △감사 백금숙 이주실 목사. 이외에 5개 특별위원회와 5개 지역, 7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유원정 기자)

## 뉴욕교협 법규위원회 1차 모임

### 혁신위 발송 1차 헌법개정안 논의

뉴욕교협 법규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30분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특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발송한 1차 헌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장 신현택 목사와 위원 박마이클 목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원기 목사가 위원장 대행직을 수행했다.  
법규위원회는 1차 모임을 통

해 혁신위가 최종안을 내면 마지막 논의 과정에 혁신위가 함께 모여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임신행위를 거쳐 총회에서 결의된다.  
법규위원회는 위원장 신현택 목사와 김원기 목사, 이만호 목사, 정순원 목사, 박마이클 목사, 이창중 목사, 박정오 목사, 박시훈 목사, 김주열 장로 등 9인으로 구성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법규위원회 1차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7월 월례모임이 지난 28일 뉴욕 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기도 한필상 목사, 말씀 양민석 목사, 합심기도(△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차 및 회의를 위하여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콜롬비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축도 이종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교회 담임)는 "빈들에서의 축제"(요6:5-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으로 만성적 식량부족현상이 2배 증가해 2억 5천만 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 빈곤도 심각하다. 이러한 때 육체적 정신적 풍성

으로 축제를 만드는 원리 3가지를 정리해본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첫째, 모아진 사람들의 손을 통해 기적의 축제를 만들었다.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고 더불어 함께 이뤄가는 예수공동체로 기적과 회복을 만든다. 둘째,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을 통해 축제가 이뤄진다. ①도시락을 싸준 어머니 마음 ②자원해서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이 ③주님을 통해 ④기도 하심 등 4가지가 함께 했다. 셋째, 순수성을 통해 축제가 일어난다. 어머니 아이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행동했다. 순수성이 없으면 예수님은 떠나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 왔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사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됐다.  
유상열 목사는 양민석 목사의 설교를 언급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날카로워졌다. 다 치유가 필요한 시기를 살아간다. 또 물질은 모아 놓고 쓰지 못하고 죽으면 일만하다 죽은 불쌍한 인생이니, 몸도 마음도 물질도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기아대책을 섬기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는 올해 1/4분기에 비해 6명이 늘어 2/4분기에서는 88명의 해외아동들을 돕고 있다고 알렸다.  
또 아동후원비가 3개월 이상 미납되면 후원자에게 연락해 보고 정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김인한 장로의 폐회기도로 마치고, 한준희 목사가 식사기도 했다.  
기아대책은 주 사역으로 제 3세계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1명당 월 30달러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readngospel.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저지그리스장로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뉴욕나눔의집에 1천 달러 헌금

### 뉴저지그리스장로교회 설립 11주년 기념예배

뉴저지그리스장로교회(담임 한동원 목사)가 설립기념일 맞아 이웃 사랑과 섬김 실천의 일환으로 뉴욕나눔의집에 설립기념일예배 헌금 1천 달러 전액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뉴저지 리버에지(River Edge)에 위치한 그리스장로

교회는 지난 7월 18일 교회설립 11주년 감사예배를 거차차 교회연합공동체 주일예배로 함께 드렸다.  
2010년 7월 4일에 창립한 그리스장로교회는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나브로교회(담임 박근재 목사)와 '겨차차

교회연합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두 교회의 조직과 행정 및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일예배와 주일학교 교육 및 각종 교회행사를 연합으로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스장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기념 주일예배시 드린 설립감사헌금 전액을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 헌금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한동원 목사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예배에는 시나브로교회 교인들과 자녀들도 함께 참여한 겨차차연합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특별히 한인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뉴욕나눔의집 가족 15명이 참석해 특별찬송으로 은혜를 더했다.  
(기사제공: 뉴저지그리스장로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CTS아메리카 개국 17주년 기념 및 공중파 송출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왼쪽 하단 타원안은 개국17주년을 축하하는 개막커튼을 이날 순서말씀이들이 하고있는 모습

### 미국을 전초기지로 복음방송 운영

#### CTS아메리카 개국 17주년 및 공중파 188 송출 감사예배

CTS 아메리카 개국 17주년 및 공중파 188 송출 감사예배가 7월 28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감경철 장로(CTS기독교TV 회장)는 “CTS기독교TV는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으로 모든 교단이 참여하는 연합기관 방송”이라며 “대표이사로 예정통합 총회장과 기독교감리회 감목회장이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경철 회장은 “CTS는 한국의 IMF라는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 개국이 됐다”며 “미주 지역의 경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디렉TV에서 방송할 수 있었고 오늘날 남가주에서는 공중파 방송이 허가됐다.



밀알 온라인 사랑의캠프에서 세족식을 거행하는 모습

### 'Jesus Connection' ...총235명 참여

#### 남기주밀알 온라인 라이브 사랑의 캠프

'2021년 밀알 온라인 Live 사랑의 캠프'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Jesus Connection(오15:5a: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사랑의 캠프는 타이틀 그대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실시간 online live' 방식으로 진행됐다. 캠프 참여자는 남가주, 북가주, 밴쿠버를 모두 합해 총 235명이었었다.

이종희 남기주밀알선교단 단장은 “지난 1년 반 넘게 장애인들이 Covid-19사태로 답답한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 생활했었는데 이번 2021년 밀알 온라인 라이브 사랑의 캠프를 통해 기쁨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비록 Covid-19 사태로 인해 예년처럼 모든 참가자와 봉사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기쁨을 즐기며 서로 친교를 나누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며 “특별히 캠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사역자, 스텝, 봉사자 및 기도로, 후원으로, 펀드레이징 물품 판매로 애써 주신 모든 밀알가족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캠프 첫날인 29일에는 밀알 사무실에서 Drive-thru를 통해 캠프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손세정제, 티셔츠, 마스크, 주

독교TV 회장) 인사말, 이철 감독 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문성 선교사(파푸아뉴기니)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박수영 변호사 팝페라 가수 최원현, 갓스이미지,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가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았으며 김정석 감독(서울남연회, 광림교회), 허근수 감독(경기연회, 동탄시온교회)가 축사를, 박경재 LA 총영사, 영길 연합회원의원, 미셸스틸박 연방하원의원, 허연행 목사(프라이미스교회) 최선규, 김지선(CTS 내가매일기쁘게 MC)의 축하영상을 관람했다.

이어서 축하케익컷팅 시간을 가졌으며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축복기도로 마쳤다. 한편 축하행사 전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CTS아메리카 사목)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인도했으며 김우준 목사(토랜스조은교회)가 대표기도, CTS아메리카 여성합창단이 특별 찬송했다.

설교는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복음은 메이지 않습니다(딤후4:2)”라는 제목으로 했으며 김영진 목사(감사한인교회 원로)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 '소셜워커의 자격과 전망' 주제로

#### 월드미션대사회복지 세미나, 강사이현아 교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의 사회복지 세미나가 '소셜워커의 자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7월 27일 오후 3시 줌으로 개최됐다. 강사는 이현아 교수(본교 사회복지학과 디렉터).

이현아 교수는 “사회복지는 한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속의 인간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욕구는 개인적 관계증진에 도움을 준다. 소셜워커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분야 등 인간의 생의 주기에 따라 필요한 분야이며 노숙인 현장, 가족관련, 병원 현장, 학교사회복지, 군인을 위한 분야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셜워커의 자격은 학위에 따라 나뉜다. 기본적으로 학사학위는 제너럴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한 아동, 지역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인간행동과 환경에 대해 사회복지 정책 윤리 등 전반적 지식을 습득하고 인턴십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장과 이론을 병행하면서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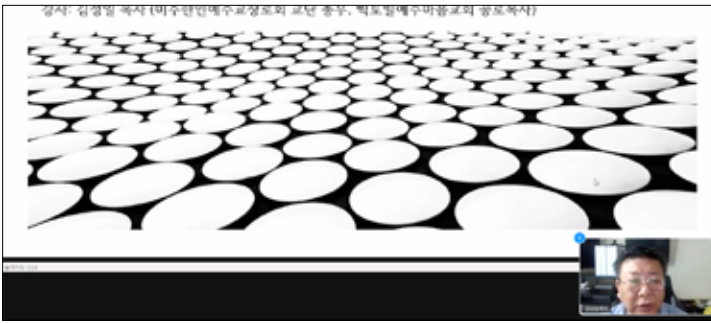
그는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케이스매니저로 클라이언트와 1:1로 만나 서비스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로서 스페셜리스트로서 일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 욕구사정 개인이 필요한 임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임상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석사학위 이상 일정시간 실습 받아야 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학위소지자는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1급과 2급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학사학위만 있어도 소셜워커로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소셜워커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어느 누구나 학습 가능한 실용학문이고 전문적 지식과 시각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업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의: (213)388-1000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사회복지 세미나에서 이현아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처치클리닉 7월 오픈강좌에서 김성일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팬데믹이 바꾼 교회환경, 미디어와 교회'

#### 처치클리닉 7월 오픈강좌, 강사 김성일 목사

처치클리닉 7월 오픈강좌가 '팬데믹이 바꾼 교회환경, 미디어와 교회'라는 주제로 7월 26일 오후 4시 줌으로 열렸다.

이날 김성일 목사(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총무, 빅토빌예수마음교회 공로목사)가 강사로 참여해 열린 강의를 했다.

김성일 목사는 “팬데믹은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팬데믹은 복음 사역의 축복이다. 2020년 3월 사도바울의 옥중서신을 설교하면서 옥중에서 복음 전파할 때의 심정이 팬데믹과 같았을 것이라고 느꼈다.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설교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그전에는 예화위주의 설교였지만 팬데믹 이후는 같이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복음중심 설교로 전환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미디어 사역은 현대교회 사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시청각적 예화를 드신 것이 미디어 사역으로 볼 수 있다”며 “미디어 사역 기원은 현대가 아닌 성경 속 시대부터였다. 미디어를 통해 성도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미디어사역을 통해 문화를 정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시대 문화를 이끌었던 것은 교회”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에서 사역하려면 성경적으로 컨펌되어야 한다. 바울은 우체국도 없고 우편배달부도 없던 시대에 서신이라는 것을 통해 바울서신을 소아시아 사람과 교회들에게 전달했

다”며 “내가 만약 21세기 바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컴퓨터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해야 이 시대 사도바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된다. 바울이 서신을 통해 복음증거를 했다다면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라고 미디어사역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상담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사역은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대면예배 때보다 3배의 시간과 수고를 해야 한다. 예배를 미리 예행 연습해야 한다. 리허설 시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유튜브예배에 익숙해진 경우 대면예배를 꺼리는 현상도 나오는데 이는 사역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성일 목사는 “교회에서 사용할 영상미디어 장비는 교회형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팬데믹 시대에 중요한 건 성도들과의 접촉점”이라고 강조하고 준비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 서부교계 게시판

#### 월드미션대학교 학술포럼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방향”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학술포럼을 8월 12일(목) 오후 3시 Zoom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목회 정보 리더리시(발제: 김서영 교수) △디지털 시대와 영성(발제: 남종성 교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문의: (213) 385-2322

#### 그레이스미션대 기독교철학 무료 강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ACSI 사립학교 교사자격을 위한 교육에서의 기독교 철학 무료 강의를 12일(목) 오후 4시 30분 미라클센터 3층 MC 304호 강의실에서 갖는다. 이번 강의는 기독교 교육과 철학, 기독교 교육의 역할, 기독교 교사의 역할, 기독교 세계관, 일반 교육에 대한 기독교 관점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문의: (714)525-0088 Ext 101, 102

#### 한인가정상담소 자녀양육 세미나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케서린 염)은 소아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의 디어 수잔(Dear Susan) 세미나 시즌3을 8월 4주간 매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8월 10일, 24일인 1, 3회 차는 수잔 정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되며, 17일과 31일에는 박제인 카운셀링 케이스매니저의 서포트 그룹이 제공된다. 세미나는 10일 오후 12시에 소아청소년 불안증, 24일 오전 10시30분에 소아청소년 기분장애를 주제로 진행되며, 17일, 31일 오전 10시 30분 서포트 그룹에서는 부모님들을 위한 소통과 사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문의: (213)235-4848



머무는교회 설립2주년 감사예배에서 양수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이상적 교회 아닌 성경적 교회로

#### 머무는교회 설립 2주년 감사예배

머무는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설립 2주년 감사예배가 8월 1일 오후 2시에 열렸다.

김문수 목사는 “지난 1주년 때는 코비드19으로 인해 모이지 못했는데 설립 2주년 감사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감사할게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며 “머무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내비치는 교회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문수 목사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최재섭 장로가 대표기도 했으며 김홍진 집사와 최미영 집사가 특송했다. 이어 양수철 목사(전 KAPC총회장, 에버그린선교교회 담임)가 '성경적인 교회'(행 9:26-31)라는 제목으로 말씀

을 전했다. 양수철 목사는 “사람마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사람마다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상적 교회는 불가능하지만 성경적 교회는 가능하다.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목사는 “신앙생활은 이상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에 굴복하는 것이다. 나의 경험과 생각, 이상을 내려놓고 주님말씀에 전적 순종하는 것”이라며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은 첫째,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 둘째 든든해야 한다. 셋째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김문수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했으며 양수철 목사 축도로 마쳤다.

머무는교회 주소: 1636 W 8th St. #315, LA (박준호 기자)

###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창립 제38주년 기념행사

#### 제3회 크리스찬문학상 수상식, 제35집 신인상 시상식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이사장: 정지윤, 회장: 송종목) 창립 제 38주년 기념행사가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송종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 기도는 송 회장의 기도와 김정복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빌2:5-8)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글을 쓰면 바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전하게 된다. 예수님의 영성을 갖고 글을 쓰게 되면 그 문인은 가장 존귀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고 말

씀을 전한 뒤 김숙영 교수의 특송과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손문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2부는 정지윤 이사장의 인사와 함께 작품 심사 과정 및 경과보고를 한 후 제3회 크리스찬문학상 수상식과 제35집 신인상 시상식을 각각 진행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크리스찬문학상 △시: 정지윤(파도를 위한 소품) △수필: 하정하(그레이스 피어리드) △소설: 연규호(안식처) 신인상 △시: 당선-오정승, 가작-이동주 장려상-장진순, 최화성 △수필: 임선주, 가작-셀비권.

이날 축사는 최학량 목사, 방동섭 목사가, 김문희(고문) 시인이 격려사를 한 뒤 오정승 씨의 시낭송이 있었으며 김창호 목사의 기도와 참석찬 이들이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한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창립 제38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수상자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성·예장합동·기침, 평등법안 철회 촉구

“창조질서 역행 동성애 반대 의견조사 불법 규정” 교계 한목소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해 주요 교단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등법안은 건강한 가치관과 전통을 훼손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며, 다수의 평등권을 침해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등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또한 동성애 반대

관한 의견 표명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과잉 입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평등법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도 같은 날 ‘평등법 반대·철회 기도회’를 전북 전주시 양정교회(박재신 목사)에서 열었다. 특강 시간에는 서헌재 한국교회법학회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가 평등법안의 독소 조항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교단과 연합기관의 공동대응, 법안 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국회의원 면담 등을 제안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역시 최근 박문수 총회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기침은 “다수의 국민이 사회의 기본 구성인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동성애 폐단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평등법에 의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국교회와 기침의 의견을 존중해 평등법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예장고신과 대신, 합신은 공동성명을 통해 평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예장통합, 예장백석,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등도 평등법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 “국민 70%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동반연, 여론 조사 의뢰 결과 발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현재 개정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해당 법 개정안을 반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반연은 지난 27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코리아(주)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동반연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찬반을 묻는 말에 응답자의 68.8%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22.3%다.

비혼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지 묻는 말엔 45.3%가 ‘반대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찬성은 41.3%다. 동반연은 “비혼 동거 법적 가족 인정을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서울 지역이 가장 높을 52.7%로 나타났지만, 대구·경북은 오히려 ‘찬성한다’는 긍정평가가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 밝혔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47.8%가 반대해 긍정적으로 본 비율(41.1%)보다 높았다. 여성도 42.8%가 반대해 찬성(41.1%)보다 높았다. 나이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50.2%)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동성으로 결합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지 묻는 말엔 67.4%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은 26.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도가 가장 높은 77.6%, 이어 광주·전라도가 75.9%의 비율로 반대했다. 성별로는 남여 각각 77.7%와 57.1%가 반대해 찬성보다 높았다. 나이별로는 60대 이상의 85.5%가 반대해 부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반면, 20대 이하는 46.9%만이 반대

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이는 찬성 비율(49.3%)보다도 낮았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6%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논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6%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해 국민 대부분이 해당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지 자세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전화 조사를 실시해 얻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며, 응답률은 5.1%다. 2021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나이, 지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조사했다.

## “모든 평신도를 선교사로 양육”

KWMA·KWMC·KIMNET 연합사업 발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 등 대표적인 선교연합기관이 선교의 확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강대홍 KWMA 사무총장, 조영중 KWMC 사무총장과 조영훈 KIMNET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동작구 KWMA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강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건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가나안’ 교인은 늘고 있다”면서 “이 시기 선교연합단체 책임자들이 한국과 전 세계 성도들에게 건강한 한국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였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 명의 사무총장은 모두 올해 취임해 4년간 단체를 이끌어 간다.

KWMA와 KWMC, KIMNET

가 모인 이유는 ‘타깃2030’의 세계화를 위해서다. 타깃2030은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 등 대표적인 선교연합기관이 선교의 확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세 단체는 현실적인 선교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타깃2030의 목표 중 하나인 100만명 자비량 선교운동을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으로 고쳐 잡았다.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은 모든 평신도를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평신도가 갖고 있는 은사를 선교적으로 사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조영중 총장은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한인들과 함께 선교하는 게 목적”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전 세계 190여개국에 750만명의 한인이 살고 있는데, 이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게 된다면 엄청난 선교의 힘이 될 수 있다”며 “특히 2만 5000여명의

선교사와 1만 7000여명의 선교사 자녀 등 선교적 불씨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그 힘을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 단체의 역할도 정해졌다. 한국에선 KWMA, 미국에선 KWMC와 KIMNET가 평신도 자원을 선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단 총회, 교회와 협업한다.

이미 KWMA는 이달 초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에서 평신도 선교 동원을 위한 교단 대표 모임을 가졌다. 모임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예장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 8개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는 10월 2차 모임을 갖는다.

조영훈 총장은 “교단을 통해 개교회들이 평신도를 선교사로 양육하도록 할 예정이다. KWMC와 KIMNET는 미국의 한인교회, 선교단체 등과 함께 이 같은 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한국, 미국에 이어 아시아 유럽 등으로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 “교회운영중단명령 정지 법원결정 환영”

한교총, 서울행정법원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처분 취소 청구 인용

19명을 초과해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담당구청이 교회에 운영중단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본 법원의 판결에 한 교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중현 목사)이 “법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한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런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교총은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

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면서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 없이 방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 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청은 지난 21일 서울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칙을 위반해 예배를 드려야 다음 날부터 31일까지 교회시설 운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 측은 지난 27일 “존재하지도 않는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교회 운영중단 결정이 내려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운영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9일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10일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예장합동 ‘한기총’ 복귀 유보

9월 교단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결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가 26일 전북 전주시 양정교회(박재신 목사)에서 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복귀를 유보했다. 임원회

는 지난 23일 한기총 회원 교단의 총무 모임인 총무협의회가 요청한 ‘한기총 복귀 요청 건’에 대해 9월 교단 총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예장합동은 2014년 총회에서 한기총을 탈

퇴했다. 한기총이 이단 시비가 있는 교단을 무분별하게 이단에서 해제했다는 게 탈퇴 이유다.

임원회는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결정한 만큼 복귀도 총회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 결정을 유보했다.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는 “(한기총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연합기관 통합과 관련한 임원회에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 다음세대 ‘비대면 여름 사역’ 활기

예장합동,유튜브·Zoom으로 청소년·어린이 캠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팬데믹 상황에 걸맞게 비대면에 초점을 맞췄다.

예장합동은 31일 ‘청소년·청년 원데이 캠프’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데 이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어린이 영어비전 캠프’를 Zoom으로 연다. 영어비전 캠프는 학생들이 각자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총 25개의 수업을 편성했다.

영어비전 캠프를 기획한 조혜영(백마대교회) 전도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온라인의 장점”이라면서 “사전에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파악했고 교사 한 명당 최대 9명까지 학생을 배정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남은 캠프도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교회마다 비대면 콘텐츠 수요가 커진 상황이다. 총회교육개발원이 지난 3월 주일학교 사역

자 303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2%가 총회에 ‘Zoom 활용한 수업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장합동은 최근 여름수련회 교재 ‘로마로 가는 길’을 Zoom에서 사용하기 쉽게 제작했으며, 온라인 교육 사례 100가지를 담은 단행본 ‘Zoom 활동을 알려줌 100’도 함께 출간했다.

교육개발원 나현규 목사는 “지난해 여름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덮치는 바람에 교회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올해도 팬데믹은 여전하지만, 교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대면예배 참석 허용 범위 확대

방역당국,거리두기 4단계 지침 중 공간별로

방역 당국이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중 정규 종교 활동의 대면예배 참석 허용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본 예배당 외에 부속 성전을 별도로 둔 중·대형교회의 경우 대면예배 참석 가능 인원 확보에 한걸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본부장 권덕철 장관) 생활방역팀은 이러한 내용의 개신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종교계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개신안은 즉시 적용된다. 개신안에 따르면 같은 종교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동 시간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단, 공간별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19명으로 제한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종교교

설은 기존의 비대면 원칙이 유지된다.

이전까지 적용된 4단계 기준의 경우엔 한 교회 내에 여러 부속 성전을 두고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다.

중수본은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며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 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과는 관계가 없다”고 부연했다.

## 박재훈 원로목사 별세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산마다 불이 탄다’ 등을 작곡한 박재훈(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사진) 목사가 한국시간으로 2일 밤 10시 별세했다. 향년 99세. 박 목사는 암 투병 중에 캐나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현재 유족과 큰빛교회가 장례 절차를 논의 중이다.

한양대 음대 교수를 역임한 박 목사는 찬송가 외에도 ‘어머님의 은혜’ ‘산골짜기의 다람쥐’ ‘시냇물은 졸졸졸졸’ 등의

동요와 오페라 ‘손양원’ ‘유관순’ 등을 작곡했다. 2011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박 목사는 평양 요한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제국고등음악학교에서 수학했다. 이후 미국 웨스턴시태대학에서 교회음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영락교회에서 지휘자로 섬겼으며, 1982년 예수의 나이에 목사안수를 받고 1984년 토론토 큰빛교회를 개척했다.

## 코로나 확산에 반한 감정 격화...힘겨운 ‘올림픽 선교’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올림픽’을 현지 한인 선교사들도 경험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그동안 올림픽이 선교의 장이었지만 도쿄올림픽에선 사실상 선교의 길이 막혔다고 전했다.

재일한국기독교연합회장인 요코하마의 김경환 선교사는 28일 SNS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국의 20여개 단체 찬양팀과 연합해 일본 현지에서 찬양전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

하는 황석천 선교사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회가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올림픽에 맞춰 선교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반한 감정도 한인 선교사의 선교 활동을 위축시켰다. 최근 미국 남침례회선교부(IMB)가 도쿄올림픽 전도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와 닿지 않을 정도다.

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특히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대면선교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대신 소극적인 방식으로 선교하고 있다. 일본의 선교단체가 올림픽 기간에 맞춰 제작한 전도지를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교회에 비치해 놓는 방식이다.

김광현 선교사는 “1954년 일본에 세워진 초교파 문서선교단체 신생선교단이 전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

## 일본 현지 찬양집회와 대면선교도 막혀 신생선교단 제작 전도지로 소극적 선교

이었는데 코로나19로 미웠다”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올해는 올림픽과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쿄도에선 27일 기준 284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대 최고치다.

선교에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선교사들의 얘기다. 24번째 후쿠오카에서 사역

미 남침례교 신문인 ‘벵티스 트프레스’에 따르면 IMB 소속 동아시아 선교사들이 일본교회 기독교인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기도하고, 전도자료 교환이나 영어 회화 등의 방법으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도쿄에서 사역 중인 김광현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들이야 올림픽 끝나고 돌아가면 그만이지만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경’에 답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며 “교회 문에 신생선교단 전도지와 마스크를 편하게 가져가도록 걸어 놔다”고 말했다.

신생선교단은 창립 이후 일본 교회 등에 성경과 전도지를 전하고 있다. 최근 한인 선교사, 한인교회 등과 연합 사역도 하고 있다.

#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출판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책들

우리 교도소에는 많은 스페인어권 재소자들이 있다. 그들은 내게 스페인어 책을 의뢰하곤 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TPPM(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에서는 영어로 된 책을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일에 시간이 걸렸지만 번역할 사역자를 찾자 일에 박차가 가해졌다. 현재 여러 권의 책들이 이미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었다. 하지만 출판 자금의 부족으로 책을 발행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별히, 출판 양이 클수록 좋은 가격에 많은 책을 발행할 수가 있

##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이 떨어질 무렵 한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TPPM은 이제까지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는데 현재 TPPM에서는 영어로 된 책들도 대량 출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전에 남편의 생명보험으로 출판한 많은 책들이 교도소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책을 통해 마음의 상처와 절망으로 신음하는 많은 재소자들이 영적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나는 익히 보아 알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책을 출판할 재정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은 마치 치료약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약을 공급할 비용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상황과도 같다. 영적인 의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도소 목사안나로서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 해를 이러한 심정으로 보내고 있다. 동시에, 나는 재소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TPPM의 책들이 다시 출판된

관했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책을 판매하여 남은 수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TPPM의 모든 책들은 아마존닷컴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며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TPPM은 책에 대한 광고를 전혀 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독자들은 교도소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이다. 그들은 책을 구입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책은 무료로 배포된다. 즉, 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없으므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출판자금을 모금해야 한다.

나는 나의 모든 책을 TPPM에 기부했으며 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TPPM에 양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관한 어

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TPPM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기부가 들어오리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교회들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돕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나는 교도소 선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 보았다. 그들은 교회 밖에 사람들, 특별히 재소자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많은 교회들이 기부를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도움은 한 번 정도면 끝이 나며 꾸준한 재정 지원이 없는 교도소 문서선교는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관해야 할 책들이 많으며 출판 비용으로 헌신해주실 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 "최고의 성인들" 간증집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교회 예배와 모든 종교 프로그램이 취소가 되었다. 나도 재소자들을 상담하며 기도를 해주는 정도로 밖에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교도소 문서 선교의 책은 변함없이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책이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재소자들은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어 하며 내게 계속해서 책을 가져다줄 것을 부탁했다. 재소자들이 가장 많이 읽고 싶어 하는 책 중에 하나는 "최고의 성인들"이다. 다행히 "최고의 성인들 4-5편"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최고의 성인들 1-3편"은 더 이상 잔여분이 없다. 대략 1000권을 발행하는데 약 3000권이 소모된다. 나는 주님이 재정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다면 그들의 영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 TPPM의 실정

TPPM에서는 많은 책을 출

판 형태의 수입도 모두 TPPM 계좌로 들어가며 내가 쓴 모든 책은 TPPM의 자산이 된다. 우리는 비영리단체인 TPPM을 설립하던 당시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확

정했다. 만일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이 떨어질 무렵 한인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TPPM은 이제까지의 사역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TPPM은 앞으로도 출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 원 스토리 11강 / 야곱(1)(창27-35장)

이제 야곱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묶이듯이 야곱은 요셉과 같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라면 이삭은 성숙한 모태 신앙인의 경우이고 야곱은 모태 신앙이긴 한데 이삭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모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 '부르심 이전'의 야곱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는데(창 25:20) 쌍둥이인 예서와 야곱을 낳을 때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창25:26).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그 아들들이 태중에서 싸웠습니다(창25:21,22).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23/참고, 말1:2,3, 롬 9:12,13)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나올 자인 큰 자 예서가 나중에 나올 자인 어린 자 야곱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의 기준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임할 수 있습니다(참고 롬9 장).

### 장자의 명분을 파는 예서와 사는 야곱

이삭은 예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예서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창25:28). 당시의 사냥은 생계의 수단도 되었지만 한번 사냥을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서가 사냥에서 심히 피곤하고 허기져 돌아와 야곱이 요리한 붉은 것을 요구합니다(

창25:29,30). 같은 형제로서 충분히 나누어줄 수도 있지만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예서의 장자의 명분을 요구합니다(창25:31). 죽을 만큼 피곤하고 힘이 들었던 예서는 '이까짓거'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의 떡과 팔죽을 먹고 마시고 갔습니다(창 25:32,33).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창 25:34).

당시 장자의 명분은 '권리와 의무'가 있었습니다. '권리'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2배 상속권이요(신21:17) '의무'는

### 이삭의 축복

시간이 흘러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을 날이 가까워 왔다고 여기고 자신이 사랑하는 예서를 부르입니다(창 27:1,2). 사냥하여 범비를 만들어오면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때 이삭의 나이를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스스로 죽을 것 같이 여겼던 이삭이 약 50년 정도를 더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후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예

서에 돌아와서, 큰 아들 예서에 대한 야곱의 축복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이자 야곱의 어머니, 야곱을 예서보다 더 사랑하는 리브가가 들고 야곱과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작전을 세웁니다(창27:5-17). 야곱은 처음에는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창27:12)라고 했지만 이미 당장에 실속도 없는 장자의 명분을 욕심내었던 야곱은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예서에게 요

나임을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복, '세상의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축복을 해도 좋으련만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이삭은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고 합니다(창 27:21). 이삭은 이미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을 덮은 야곱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합니다. 심지어 '네가 참 내 아들 예서냐'(창27:24)라고 대놓고 물어봅니다. 이삭도 이삭이지만 야곱도 감심장입니다. 야곱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는 자라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면 솔직히 자백했을 텐데 야곱은 끝까지 감니다. 야곱은 '그러하니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시작한 거짓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은 그가 야곱에게 한 기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만기를 원하노라"(창 27:29).

이삭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라고 했는데 야곱에게는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닌 형제 예서 밖에는 없습니다. 이 기도는 결국 야곱과 함께 묶여있는 요셉에게 이루어질 기도입니다(창42-44장).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라던 '복' 대신 형 예서의 '복수심'을 만들었습니다. 예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 죽기만 하면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고 합니다(창27:41).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데 '사람 말의 축복'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예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만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라도 이삭을 앞으로 50여년을 더 생존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었던 리브가는 잠시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창27:42-6). 잠시, 한 때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야곱은 야곱의 몸이 야곱의 몸에 손을 얹고 했다 해도 이삭의 마음에서 그려낸 아들은 분명 예서였습니다. 둘째, 실혹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기에 축복이 야곱의 것이라 해도 정작 '복'을 주는 주체는 사람인 이삭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을 비는 '축복'을 할 수 있지만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인 아버지 이삭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셨고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야곱의 '어리석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곁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잠10:22).

hfamilyfa@gmail.com

부모를 돌볼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서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전형입니다. 예서는 40세에 헛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었습니까(창26:34,35). 예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에 명목상의 "장자권"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명목이라도 그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장자의 '권리와 의무'를 떠나서 장자의 명분에는 '하나님의 복'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관심도 없이 그저 자신을 위한 것만 기대하는 것도 약하지만 예서와 같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약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서가 망령되어 행했다고 합니다(히12:16).

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합니다(창47:9).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바로 왕 앞에 설 때가 30세였고(창41:46)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난 때는 7년 풍년 후에 2년 흉년이 지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창45:6). 그럼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91세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라반 집에서 떠날 것을 결심했고(창30:25) 그때는 라반의 집에 있는 지 2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창31:41). 그러면 91년에서 20년을 빼면 71년이 되니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날 때의 나이는 71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예서와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 지금 이삭이 아들 예서에게 '죽을 것 같으니 잘 먹고 잘껏 축복해준다'는 때는 131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창35:28).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 것입니다(사2:22).

## 아브라함이 삶의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경우라면

### 이삭은 성숙한 모태 신앙인의 경우이고

### 야곱은 모태 신앙이긴 한데 이삭과 전혀 다른 세상적 모태 신앙인의 모습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그의 주권을 찬송함(눅2:51-56)찬34장

첫째,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구원임을 강조합니다(51).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 이미 보인 대로 오직 하나님이 친히 행하는 구원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되심을 강조합니다(52-53). 교만한 자를 흠오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가난한 자에 은혜 베푸심을 강조합니다(52-53). 주리는 자, 비천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 성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 화 징계가 가져온 은혜(눅2:57-66)찬344장

사가라의 징계가 아팠으나 회복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첫째, 그 일로 그의 친족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58). 요한의 출생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했습니다. 둘째, 찬송이 있었습니다(64). 징계 중에 사가라가 들은 대로 결례와 할례를 이행함은 사람들의 찬송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하

나님의 긍휼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65). 요한의 이름을 짓고 사가라의 혀가 풀리고 말하는 일이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징계의 손을 기뻐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 수 사가라의 확신(눅2:67-73)찬506장

징계가 풀린 후 성령이 충만한 사가라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실 대속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68).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뿌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을 성취하심을 찬송했습니다(69-71).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 뱀과 그의 후손을 멸할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확신했기 때문

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72). 상징들과 모형들로 반복적으로 표현된 언약이 구속자의 죽음으로 완성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구속의 세계를 보는 은혜로 주를 크게 찬송합니다.

## 목 사가라가 본 구속(눅2:74-79)찬518장

연단을 통해 구약의 그림자 속에 비춰지는 구속의 실체를 본 사가라는 구속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첫째, 원수의 손에서 건짐 받는 일입니다. 구속은 죄, 죄책 그리고 형벌과 그 주관자인 사탄의 손에서 건짐 받아 사랑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둘째, 성결과 의로 담대히 주를 섬기는 일

입니다. 구원받은 후 주를 바로 섬기는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되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구속입니다. 셋째, 돈는 해처럼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이 구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가라의 구속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 금 세례요한의 성장요약(눅1:80)찬334장

한절로 요약된 요한의 연단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의 본입니다. 첫째, 영혼 위주의 성장을 가졌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그의 영혼 곧 마음 위주로 살았습니다. 영혼의 잘됨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원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욕 위주의 성장입니다. 금욕주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배격하나 금욕은 경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훈련장으로서

적막한 빈들에 머무는 것은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분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까지 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으로 무딘 시대에 세례요한의 경건을 구합니다.

## 토 마라나타(계22:20-21)찬163장

초대교회의 한 인사말로 알려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대로 계시록의 마침은 주의 재림에 관한 교회의 바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주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진실로 속히 오시기 때문에 경건 안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벵주 3:11-12에 경건으로 깨어 재림을 기다리라는 권면은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를 사모하며 깨

어있어야 합니다. 헛됨으로 가득 찬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의 난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며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날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주의 은혜 속에 준비해야 합니다(21). 이 두 경건함과 사모함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려할 때 생겨지는 열매입니다. 항상 은혜 충만을 구합니다.

#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

## 알고도 행하지 않음은 죄입니다

사실 바벨론이라는 최강의 나라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느브갓네살왕의 막대한 군사력과 철권통치로 세계를 지배했던 금의 나라가 겨우 7명의 왕을 배출하고 오직 90년(BC 627-539)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존속했다. 그러기에 매우 의아할 것이나 그건 사실이였다. 그러기에 인생 문명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바벨론 왕조가 곧 멸망함에도 이를 모른 채 향락에만 빠져 살았던 벨사살은 세상의 종말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허무한 삶을 상징하고 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라!

질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웠는데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확한 추와 잘못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신 25:15) 부정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한 때가 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자. 그리고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한다. 모든 지혜자들도 다니엘도 글자들을 보았지만 오직 다니엘만이 해석했다. 왜 그랬을까? 아람 글자는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기록되어 어떤 모음을 자음 사이에 넣느냐에 따라 글자 뜻이 달라진다. 아마 지혜자들은 벽 위에 쓰여진 자음들(mn, tq, prs)을 화폐 단위로 간주하고 이를 mina(므나), shekel(세겔), peras(베레스)라고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수동태로 보고 다른 모음을 넣어 읽었다. 즉 mene(하나님이 당신 재위기간을 헤아리셨다; numbered), tekel(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렘51:39). 큰 연회를 베풀고 흥에 잔뜩 취한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고 신속하며 매우 놀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연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는데 이때 벨사살 왕의 반응을 보라. “왕의 얼굴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렸다”(단5:9).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 인생의 최후를 맞는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벨사살 왕은 즉시 모든 지혜자들에게 글자를 해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다. 이때 왕비(단5:10)가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한다. 그녀는 누구일까? Amplified Bible에 의하면 왕비는 왕의 어머니로 소개되는데 그녀는 느브갓네살

왕의 딸로 나보니더스와 결혼한 사람이다. 나보니더스 왕은 왕국의 통치에 관심이 없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그녀는 아버지 느브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회개함을 목도한 사람이고 다니엘의 지혜와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을 벨사살 왕에게 소개한다.

## 인생에 결정적 순간에 회개 기회를 잡으면 구원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침착한 다니엘은 이 순간에 먼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전한 후 글자들을 해석해준다. 즉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두 가지 죄(성령을 훼방하는 신성 모독과 알고도 행하지 않음 죄)를 언급하며 벨사살을 나무라는 것이다.

왕의 딸로 나보니더스와 결혼한 사람이다. 나보니더스 왕은 왕국의 통치에 관심이 없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그녀는 아버지 느브갓네살이 다니엘 때문에 회개함을 목도한 사람이고 다니엘의 지혜와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니엘을 벨사살 왕에게 소개한다.

벨사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져온 성물을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데 사용하게 했다(단5:4). 그의 교만과 하나님을 거역함과 그리고 우상숭배(금, 은, 동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벨사살이 알고도 행하지 않음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무슨 말인가?

물론 당시 바벨론 지혜자들이 다니엘같이 읽었더라도 해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바로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금, 은, 동 같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물질주의 세계관에 빠져 이를 화폐단위로 읽고 해석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를 바로 해석했던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다.

벨사살 왕은 그의 할아버지인 느브갓네살왕의 행적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다니엘 4장에 나온 그의 조서 내용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했던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그것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보다 더 높이고 있었다(단5:23).

그러나 이를 어찌 하나님이 벨사살 혼자에게만 주는 교훈이라 생각하는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는 곧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들어야 한다.

그렇다. 알고도 행하지 않음 죄! 이는 우리에게 동일하다. 다윗과 밧세바가 행한 죄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배우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야간의 죄, 아니야와 삼비라의 교훈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물

메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헤아리시고 이제 끝이 있게 하신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끝이 있기 마련이며 이곳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데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세와 태도들을 저울에 달아 보실 것이다.

우바르신,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며 우리의 삶이 끝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나누어주실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간/중

이하루 목사

유럽에서 통일선교를 하다(2)



짧은 지면에 아들이 병원에 있던 7개월 간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아들은 심장병 수술을 받지 않고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달리기를 할 수 없고, 심장에 혈전이 있기에 자칫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술을 하지 않고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의학을 무시하고 믿음만 의치는 몰상식한 신비주의 신자라 오해할까 봐 얼마나 병원에 양해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가 잠깐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혼자 있다 갑자기 우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져서 어디 또 다쳤나?"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아들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무 마음 아파요~"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뻐던지요! "하나님 제 아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려 주셨군요! 이제 죽어도 재는 천국가겠네요." 저는 그날 너무 기뻐서 아들을 안고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어떻게 죽든지, 차에 치여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심장병으로 죽든지, 이 순간부터 제 아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첫째의 죽음이 해결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격정적이었습니다. "저 녀석도 죽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리고 아내와 제 목숨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처럼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몇 주간 잠을 못 잤습니다. 선교지 나가는 것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살려하지 말고 죽으려고 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살려고 하면 병원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차와 집도 있어야 하고, 이런 저런 있어야 할 것이 많지만, 선교지에서 죽으려고 하면 그런 것 다 필요 없다. 선교지 살러가지 말고 죽으러 가거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선교지에서 잘 살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죽으면 되지!' 단 순한 생각으로 선교지에 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심장병으로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죽어도 구원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었고 죽으면 산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 9월에 심장병이 있는 첫째 아들과 생후 6개월 된 둘째를 데리고 아내와 함께 윗마을로 떠났습니다.

제가 아픈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윗마을 지역은 윗마을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돌아보면 너무 흥분되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지만 또한 슬프고 너무 춥고 너무 외로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면에서는 흥분되는 시간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너무 외롭고 슬픈 시기였습니다.

저는 생명이 위급하고 자유가 없는 윗마을 분들을 만나면서 삶의 호화호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저희 두 아들은 다니던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엄마들이 아이들 옷 좀 잘 입혀라, 사이즈 좀 맞게 입히고, 다림질도 해서 입히라고 핀잔을 주어서 아내가 울었습니다.

"어보, 애들 옷 그만 얻어다 입히고 새 옷 좀 입혔으면 좋겠어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낫선 세탁소에서, 찾아가지 않는 옷이 있는 데 가져가라고 해서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옷들을 윗마을 사람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아이들 옷도 골라 입혔습니다. 그런 옷을 주로 입히다 보니 품에 맞는 옷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들 왕따도 있고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아예 한인이 없는 시골로 이사 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사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사역에 따라서 1년에 2-3번 이사를 했는데 산골로 들어가면서 첫째와 둘째는 학교와 유치원도 포기하였습니다.

유치원도 학교도 없는 시골의 산 속의 삶은 낮에는 나뭇개고 밤에는 은하수가 불빛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은 산처럼 하늘처럼 고요하게 지내다가 누군가 책을 갖다주면 그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 어른용 책이었습니다.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7.가정선교는 시대적 요구이다

급변하는 사회는 가정으로 하여금 많은 문제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현대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와 위기는 매우 심각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의 발달과 아울러 사회의 변화가 촉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이 붕괴되고, 문제가정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술진보와 노동조건 향상으로 체력상 여자에게 불가능한 일이 적어지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욕망상승의 결과로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하여 남자만으로 충족되지 않게 되고 핵가족화한 결과로 육아수의 감소에 의한 가족규모의 축소와 가사와 육아분담을 도와주는 시설, 기기, 소비재 보급

화는 결국 부부관계의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가족관계와 새로운 가정윤리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가족화와 가족기능의 변화 그리고 역할분담 등의 혼돈 등은 현대가정에서 사회문제를 나타내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의 불안정 문제와 노인문제 그리고 청소년 문제 등은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가족의 불안정 문제라 함은 현대가족은 부부중심 가족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역할기대와 역할 수행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가족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다툼과 분쟁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가족해체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도리를 다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년기가 장기화됨으로 노인문제는 가만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부모역할의 과중화에 따른 무관심과 사회전체의 분위기 속에 광배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매스 미디어의 악영향 그리고 부모세대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역할상실, 과보호와 자유방임적인 훈육태도,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부모부재의 결혼가정에 대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심각한 가정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시대적 요

가정문제 해결위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가정선교

등으로 아내의 직업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졌고 여기에 남녀평등사상과 여성해방운동의 파급으로 아내가 밖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맞벌이 가족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아내의 가정에 있는 시간이 감소된 반면 남편의 근무조건 시간의 감소로 남편의 가사 노동협력의 기회가 증가되었고 아내의 고소득, 고수입 증가로 남편의 전업주부화(Mr. Mom)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의 변

못하고 아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의견충돌이 되고,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각자의 맡은 바 역할수행을 포기하면 결국 가정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가족의 세대적 분열에 의한 핵가족화로 가부장적 가족에서 부부중심적 가족으로 바뀌므로 효의 권위가 상실되었고 노인의 지위와 역할변동으로 노인의 권위가 저하되었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별로 소용없는 것이 되었으며 노인이 가정경제에 있어서 오히려 부담적 존재가 되

청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바로 가정선교입니다.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가정생활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경적 가정선교는 모든 가정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솔선수범하여 가정문제의 해결사로서 시대적 요청에 기독교적 응답으로 부응하여 가정선교에 앞장서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다니엘 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그렇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존재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그렇다.

비교동물학의 창시자Konrad Lorenz(1903-1989)는 거위와 오리 연구를 통해 동물

은 태어나서 특정한 순간에 처음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식하는 본능이 있다는 각인(Imprinting)이론을 발표하였다.

인생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경험한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불행하게도 결국 벨사살은 결정적인 시간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회개

의 기회를 제공하여서 죽기 직전까지 회개의 사인을 주셨지만 그는 이를 건어 차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그와 그의 할아버지 느브갓네살의 차이였다. 느브갓네살은 말년에 회개하였지만 그의 손자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교훈은 매우 준엄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딤후4:2).

hlee0414@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돌파하는 믿음, 간절한 매달림,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저자: 김영길, 김문환, 김문환, 김문환, 김문환, 김문환, 김문환, 김문환, 김문환, 김문환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 이념적으로 양분된 미국사회 단면 '비판적 인종이론' 논쟁! WP, 등장 배경과 치열한 정치권 논쟁 소개

지난해 5월 백인 경찰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제도적 인종차별을 개선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우익 세력의 반발 또한 거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은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는 지적 자체가 나라를 분열시킨다고 주장한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보는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 CRT)'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한다(What is critical race theory, and why do Republicans want to ban it in schools?)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등 5개 주의회는 최근 공립 초·중·고교에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주지사 경선에서도 비판적 인종이론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17세 대학생 우마 매논이 21일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지한 주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주지사 선거 출마까지 선언했다. 언론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 월 스트리트저널의 전 편집장인 제리드 베이커는 21일 기고에서 "비판적 인종이론은 반교육"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선거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기고문에서 "전국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비판적 인종이론으로 알려진 우스꽝스러운 좌익 교리로 세뇌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분열적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은 심리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정부의 인종문제에 대한 교육이 미국의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다.

비판적 인종이론이란 인종차별을 개인적 편견과 행동들의 총합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보는 학문이다. 미국의 법과 사회제도가 백인과 비백인 간의 사회·경제·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다. 1970-80년대 데릭 벨, 킴벌리 크렌쇼, 리처드 델가도 등이 주창했다.

미국인 다수가 수십 년 간 신경도 안 쓰던 이 이론을 수면 밖으로 끌어낸 사람은 다큐멘터리 감독에서 보수 운동가로 거듭난 크리스토퍼 루포다. 그는 지난해 9월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비판적 인종이론이 퍼져 있다"면서 플로이

급했다. 보수 정치권은 루포가 '발견'



## 인종차별을 구조적 제도적 문제로 접근 보수, "인종차별 인정이 국론 분열" 주장

드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이 이론에 세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뉴스는 지난 11개월 동안 이 이론을 550여 회 언

하고 폭스뉴스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 이론을 지난해부터 주요 의제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

들은 이 이론이 "미국이 인종차별적인 국가라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모든 백인을 잠재적 인종차별주의자로 여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다양성 교육을 반애국적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끊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이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19년 건국논쟁에도 불을 지폈다. 흑인 노예제의 역사와 인권운동을 다룬 보도가 발단이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1776년이 아니라 흑인 노예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1619년을 미국 역사의 시작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공화당은 '역사적 이해보다는 이데올로기를 우선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이드 죽음을 계기로 확산된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의 원흉으로 1619 프로젝트를 지목했다. 지난해 9월에는 "좌익 세뇌 교육"에 대해 애국교육을 한다는 명분으로 '1776위원회'를 만들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위원회를 폐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기고에서 애국적인 친미 교육을 받도록 자신이 설치했던 1776위원회를 각 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 인종이론은 모든 백인을 '잠재적 인종차별주의자'로 여긴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화당 지지자 세력인 중저소득 백인 남성들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역사 논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매체 뉴리퍼블릭은 "보수주의자들에게 비판적 인종이론은 첫 집권 6개월간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더 실질적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남겨진 공백"을 채우는 유용한 대리 약당"이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17일 발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의 5%만 같은 답을 했다. 흑인의 68%, 백인의 31%가 비판적 인종이론에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학계는 미국 사회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실재한다고 반박한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해 2월 보고서를 통해 백인들의 평균자산(92만 9800달러)이 흑인 평균자산(13만 8100달러)보다 6.7배 많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지난 17일 보고서를 통해 만약 미국에서 흑인이 백인 동류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흑인 200만명이 추가로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비백인들은 주택시장에서도 급리나 대출조건 등에서 차별받는다. 미 의회는 1968년 주택담보보상법에서 비백인 차별을 금지한 공정주택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온라인 대출회사인 렌딩트리에 따르면 2019년 흑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거절 비율은 17.4%나 됐다. 백인에 대한 거절 비율 7.9%의 두 배를 넘는다. 사법제도에서도 비백인은 차별받는다. 시민단체 '경찰폭력지도 만들기'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비율 대비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확률은 백인보다 2.7배 높았다.

결국 민주당과 좌파에선 CRT가 인종차별/인종주의의 개선을 요구하는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반대로 공화당 우파에선 미국 역사를 '백인우월주의'로만 묘사해 부인하려는 사악한 역사관으로 보고 거부한다. 이념적으로 반으로 쪼개진 미국 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우리는 보고 있다.

### 책소개

저자 박운송 목사(엘피스패밀리사역원 대표)

## "사모행전"



LA복음연합교회 협동목사이며 엘피스패밀리사역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운송 목사가 사모들의 아픔을 담은 "사모행전"을 출간했다.

"사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모들의 삶을 보게 됐다"고 말하는 저자는 서문을 통해

"10여 년간의 전문 목회 돌봄 사역을 통해 만난 사모들은 한결같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였다. 사역에서 소외된 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고 묵묵히 남편 목회자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사모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른다. 사모의

그런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는 요인 중에는 '여성에 대한 차

## 사모의 정체성 회복과 바람직한 목회와 교회의 성숙함 이야기

별이 심한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서 아이러니하게

도 사모에게 '목회자와 동일한 기대치를 요구'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교회 안팎의 현실과 인식들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피력하며 사모의 정체성 회복과 이를 통한 바람직한 목회와 교회의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모의 성경적 자아 찾기'라는 부제목을 달고 있는 본서는 제 1장 '사모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 교회 안에서, 제 2장 '심층 인터뷰, 사모가 생각

하는 사모의길', 제 3장 '사모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 가정 안에서, 제 4장 '행복한 사모, 가정과 교회를 살린다'로 구성돼 있다. 또한 저자는 책 말미에 '사모지원 그룹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웅민 목사는 "본서는 사모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개발하며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함으로 교회의

꿈을 키워 가는데 지침서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유를 따라 행복하게 일하는 사모를 위해 일독을 권한다"고 추천의 말을 적었으며 이외에도 강준민 목사, 장경철 교수, 박성민 교수, 이경식 교수, 김남중 교수, 변명해 교수, 김은주 사모 등이 추천사를 기록했다.

박 목사는 경희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미드웨스트신학대학원 기독교상담학 석사, 아주사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난 2016년부터 엘피스패밀리 단체를 시작해 사모들을 섬겨오고 있다.

▲저자 연락처:(213)700-9928 (이성자 기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기 그 귀한 소명자를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신학과 이민목회 현장을 겸비한 교수진, 세계의 복음 현장을 누비는 자랑스런 동문,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재학생, 그리고 따뜻한 교직원들이 함께 기다립니다.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KAPC)의 총회 인준 신학교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 아시아 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의 준회원입니다.

###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장학금 지급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2021년 가을학기 입학안내 및 학사일정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여 교역 학	3년	
	신학교 부설	평신도 여학원, 신학원	세례교인

대학원	목회학석사 (M.Div)	3년	
	기독교교육학석사 (M.R.E)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M.Miss)	2년	
	신학석사 (Th.M)	2년	M.Div 학위 학력자

◆신학석사(Th.M) 과정은 설교학 전공으로 국내외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개설됩니다.

###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컨ട장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21년 9월 3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21년 9월 4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21년 9월 7일(화)-9월 9일(목) 오후 8시
- 5 신입생 등록 기간 : 2021년 9월 7일(화)-9월 9일(목) 오후 6시
- 6 수 업 기 간 : 2021년 9월 7일(화)-12월 16일(목)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김성국 박사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917)733-7387